

[시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스타트'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3.29 06:00 | 호수 66 | 15면



박진철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그린리모델링 서울경기 지역거점 플랫폼 센터장)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올해를 대한민국 그린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린뉴딜에 총 8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이행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린뉴딜은 1930년대의 뉴딜정책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대공황을 타개했듯이, 환경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서 같은 맥락을 공유하는 것이다. 2019년 미국에서는 그린뉴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린뉴딜의 핵심 개념을 ‘유럽그린딜’ 구상에 담아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20일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은 취임식에서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린뉴딜에서도 핵심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실내쾌적도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리모델링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축·에너지 관련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기관을 2020년 10월 말에 모집공고해 심사를 거쳐 전국에 걸쳐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난 1월 28일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선정된 6개 지역거점 기관장들이 협약식과 전문가 토론회를 거행했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서 수행될 세부 내용은 △온실가스 현황파악 △설계, 시공, 사후단계에서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코로나 대응 설비기기(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에어샤워 등) 및 건물 운영 가이드 매뉴얼 작성 및 배포 △관련 업체, 주민참여의 교육 프로그램 운

영, 창업 지원 공모전, 작품전 등을 통해 우수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 △그린리모델링 사업성과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이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됐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에는 중앙대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과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등의 리모델링사업 관련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요소로는 고단열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해 에너지성능 등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다시 말해 건물에너지소비와 관련해 온실가스관리제를 강화시키고 제로에너지건물의 보급을 앞당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 주택에 에너지절약기술을 적용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기계설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사업이 스타트업 됐다.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해 기계설비산업도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창구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계설비신문